

# 우리 전통의 또하나 소박한 아름다움

## 김옥랑 엮음 《한국의 나무꼭두》

김옥랑(53)씨는 《한국의 나무꼭두》를 펴내며 20여년간 품고 있던 소장품들을 꺼내 놓았다. 꼭두의 기원과 역사, 한국 전통꼭두의 의미를 살핀 이두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짙은 글 〈나무꼭두의 역사와 쓰임새〉, 나무꼭두의 자연스런 색채감과 역동성을 그대로 포착해낸 구본창의 사진이 어우러져 자칫 사라져버렸을 온갖 '나무꼭두'가 우리 앞에 걸어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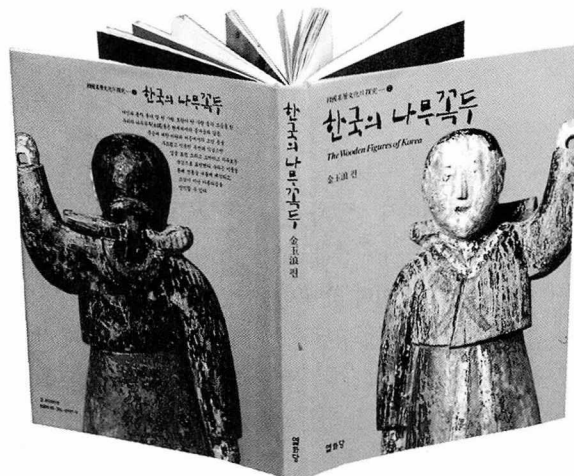
### 망자를 모셨던 나무꼭두들

사람의 형상을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을 '목우', 우리말은 '꼭두'라 한다. 요즘 말하는 '인형'은 일본 에도시대 이래 '닌교오(人形)'란 말이 일반화된 것의 영향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나무꼭두는 명기(明器, 분묘에 부장하기 위해 만든 동물, 사람, 그릇, 악기, 기구 등을 총망라하는 이름)로 쓰였다. 삼국시대에서 출토되는 많은 토기와 토우도 산사람을 순장하던 대신 쓰인 부장품들이다. 오늘날 수집돼 있는 나무꼭두들은 환조돼 있고 당채로 채색됐으며 대부분 상여에 부착돼 있던 것들이다. 드물게는 신당(新堂)에서 나온 신상(神象)이고 어린이들이 놀던 완두꼭두도 발견된다.

상여에 붙인 남녀상과 동물, 각종 모양의 꼭두는 망자를 호위하고 저승으로 천도하여 극락세계로 모시기 위한 것이다. 상여는 모두 불살라 버렸으므로 나무꼭두들의 보존은 쉽지 않을 성싶다.

《한국의 나무꼭두》에 소개된 꼭두들은 거의 조선시대 것이다. 대부분 이름 모를 상여장들이 만들어 상여 난간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꼭두의

세월의 흔적을 바랜 빛깔로 드러내는 다양한 나무꼭두들은 자칫 잊을 뻔했던 우리 전통의 또다른 문화를 들춰보인다.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기울었던 세심한 정성 속에서 아득한 우리의 원형성을 발견할 수 있다.



소박한 아름다움은 조선시대 기품 있던 민속예술품의 예술적 경지를 보여준다. 완벽한 모양의 조화, 섬세한 얼굴 표정, 순박한 손놀림은 나무꼭두 하나에도 온 마음을 기울였던 옛 장인들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 복식 등 중요한 기록자료로도 가치

여인 꼭두들을 보면 포와 치마 저고리, 머리모양과 장식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꽃을 바치는 화동이나 법을 구하는 선재동자, 공양동자들도 자주 등장한다. 주로 어린이처럼 서 있는 모습에 웃은 중국풍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남자꼭두들은 짧거나 늘거나 모두 흥포나 녹색 포, 푸른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의관을 갖춘 정장한 모습이다. 더러 개화기 중산모를 쓰거나 순검 복색, 도인의 모습도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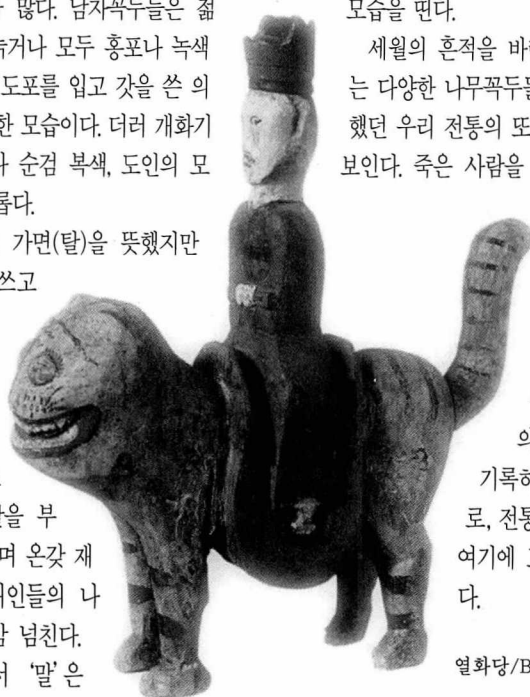
광대는 본래 가면(탈)을 뜻했지만 나중에 탈을 쓰고 놀이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됐다. 금의에 채화와 공작털을 꽂은 황초립을 쓰고 익살을 부렸던 광대, 줄타며 온갖 재주를 부렸던 재인들의 나무꼭두도 생동감 넘친다. 말 탄 꼭두에서 '말'은

죽은 자의 영혼을 신고, 하늘로 돌아가는 신앙 세계를 상징한다. '기마꼭두'는 대부분 상여난간에 세웠다. 호랑이나 용을 탄 꼭두도 더러 보인다. 백수의 왕인 호랑이를 탄 꼭두는 신선이나 생전의 선

악을 가리는 염라대왕,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띤다.

세월의 흔적을 바랜 빛깔로 드러내는 다양한 나무꼭두들은 자칫 잊을 뻔했던 우리 전통의 또다른 문화를 들춰보인다. 죽은 사람을 천계로 떠나보내며 기울었던 세심한 정성과, 그 마음이 깃든 각양의 나무꼭두에 나타난 복식과 머리모양의 변천은 전통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로, 전통문화의 원형으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김지원 기자

영화당/B5/184면/40,000원



### 인터뷰

## 나무꼭두에서 찾은 '원형성'

《한국의 나무꼭두》 펴낸 김옥랑씨



김옥랑씨.

그저 잊을 뻔했던 '나무꼭두'와의 만남은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이 표현했듯 김옥랑씨(53, 동승아트센터 대표)의 제대로 된 '눈구녕' 덕택이다. 20여년 전 물질의 풍족함 가운데도 마음은 온통 정신의 갈급함에 흔들렸다. "우리의 옛 물건들에서 힘을 느꼈고 석물과 불화 탕화, 고서화 수집에 몰두했지요. 어느날 청계천에서 석물들 사이에 있던 신비하고 소박한, 때로는 익살스런 나무꼭두의 표정에 눈과 손이 동시에 잡혔습니다."

그렇게 모아온 나무꼭두가 3백여점. 투박하지만 풍부한 표정을 지닌 나무꼭두가 꼭두극 활동의 터를 열어주었다. 꼭두극단 '낭랑'의 창단과 전문지 《꼭두극》(86.3~88. 여름)의 창간으로 이어지는 꼭두극운동, 동승아트센터와 영상원 설립 등 문화예술운동까지. 처음엔 '유한마담의 외도'쯤으로 여겼던 예술인들에게 이제 그녀는 탁월한 '문화기획자'로 아낌을 받는다.

20년 동안 모아온 나무꼭두들 가운데 부르짖고 외치는 듯한 동적인 모습의 젊은 여인꼭두(표지사진)에 가장 마음이 끌린다. 그 치열함과 당당함이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나무꼭두를 보며 아득한 우리의 원형성을 발견한다. 2년 뒤 학술이론과 소개되지 않은 괴면·축원비·사리탑까지 보완한 완벽한 자료집을 다시 펴낼 작정이다. 작은 나무꼭두에서 시작해 '전통의 뿌리찾기'에 매달려온 그의 폭포같은 열정이 있기에 아직 우리의 문화예술은 옛 향기의 품위를 잃지 않는가보다. — 김지원 기자